

# 광양 노후 원도심 광영동 제2 중흥기 맞는다

###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 공모 선정...2020년까지 1156억 투입 축구테마센터·문화창조공원 등 '살맛나는 정주권 도시' 조성

거주인구 감소와 상권침체 등으로 '낙후 지역'이란 오명을 쓴 광양시 광영동이 제2의 중흥기를 맞고 있다.

광양시는 오는 2020년까지 총 1156억원을 투입해 광영·의암지구를 '살맛나는 정주권 도시'로 집중 개발하기로 했다.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지난 1983년 광양제철소가 들어선 후 급격한 인구 증가로 성장했던 광영동은 1990년대 후반부터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를 겪어왔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광영동의 환경개선과 정주권 확보를 위해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공모사

업'에 도전·선정됐다.

시는 1차 사업으로 오는 2020년까지 국비 30억원을 포함한 총 60억원을 투입해 축구테마로(길)와 문화창조공원, 도로확장, 주거정비사업 등을 추진한다.

시는 또 지난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농촌중심지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내년까지 국비 등 총 60억원을 들여 현대고층아파트 앞 상가지역에 축구테마센터와 공영주차장, 전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영·의암 지구 2500세대 거주 신도시 탈바꿈=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9년까지 총 사업비 1036억 원이 투

입되어 2500세대가 거주하는 신도시로 탈바꿈된다.

특히 기존 광영동사무소가 옮겨오고 축구장 등 운동시설도 대폭 구비되는 등 주거와 행정이 복합된 힐링 지역으로 조성되면서 최근 택지 분양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광양제철소와 여수국가산업단지 등이 인접한 주택지와 인근 중마권과도 10여분 거리로 최적의 주거상업복합단지로도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주여건 개선, 2만여 자족도시 성장 가속도=광영동은 1990년 후반까지 서비스업 중심이었으나 낙후된 도시기반시설과 도시가 확장될 수 없는 지리적 특성 등으로 몰락의 길을 걸어왔다.

다행히 최근 광영고등학교가 설립되고 부영아파트의 재개발과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 경관개선사업 등 각종 도시 계획 사업의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다시 활력을 되찾고 있다.

광영동 인구는 1996년 기준 1만8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03년 1만6000명으로 줄어들고 올해 5월말 기준 1만3000명으로 급격히 감소한 상태다.

광양시는 택지개발과 도시 개발 사업에 집중 투자해 옛 광영동의 명성을 되찾고 2만명이 거주하는 자족도시로 성장시키겠다는 의지다.

정은태 광양시 도시과장은 "옛 동양광권 중심지인 광영동은 중마동 등 인근 도시 확장으로 20년 만에 몰락의 길을 걸어왔다"면서 "이번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광양시의 중심 도시로 성장하는 광영동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발대식

광양시가 '여성 안전행복도시'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

22일 광양시에 따르면 최근 중마동 주민자치센터 다목적강당에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발대식을 가졌다. 이번 발대식에는 시민참여단 57명과 정현복 광양시장, 김성희 시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시민참여단에 위촉장을 전달했으며, 시민참여단 대표 정미숙, 박하나씨는 결의문을 낭독했다.

위촉된 시민참여단은 앞으로 양성평등 문화 활동, 교육 등을 통한 역량 강화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과 애로사항을 다

양한 시각에서 살펴보고 아이디어를 제안하게 된다.

또 여성친화적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과 함께 지역 환경 개선에 참여하는 등 광양시 파트너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전국 최초로 어린이 보육재단을 설립해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기반을 다지고 청년이 꿈을 이루는 희망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여성 안전행복도시를 이어나 어린이와 청년, 여성, 어르신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광양시는 최근 중마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발대식을 가졌다. <광양시 제공>

## 농촌마을개발사업 '국사봉랜드' 운영 준비 분주

### 73억 투입 체험장·숙박동 갖춰 시, 내달 운영위와 협약 체결

광양시가 옥곡면 국사봉권역(수평리, 대죽리, 묵백리 일대) '국사봉랜드'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사봉랜드'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지난 2011년부터 국비 포함 총 사업비 73억원을 투자해 숙박동, 체험장, 세미나실, 수영장, 등산로,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주민 스스로 마을의 발전계획을 수립해 농촌생활환경을 정비하고 개발을 통한 농촌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는 게

광양시의 설명이다.

광양시는 그동안 1단계와 2단계 사업을 나눠 추진했으며, 지난 3월 권역지원센터와 다목적광장 등 시설물 조성을 완료하고 시설 운영을 위한 SW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또 지난 14일 그동안 운영태는 추진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재구성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회의도 개최했다. 추진위원회에서는 다수의 마을주민이 참여하고 운영수익을 마을로 재분배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권역 내 8개 마을이 모두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로 재구성하기로 했다.

광양시는 오는 7월 SW 운영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뒤 운영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국사봉랜드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조명준 광양시 지역개발팀장은 "국사봉 권역은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맑은 물과 아름다운 풍경의 자연환경 등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라며 "국사봉랜드 운영을 통해 지역민의 소득증대와 권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포스코는 최근 '2017 포스코명장' 3명을 선정하고 명장 임명패를 수여했다. 왼쪽부터 고석범 경영지원본부장, 김용훈 명장부부, 남태규 명장부부, 서광일 명장부부, 권오준 회장. <포스코 제공>

## '2017 포스코 명장' 3명 선정

### 남태규·서광일·김용훈씨

포항제철소 남태규, 서광일씨와 광양제철소 김용훈씨가 기술인 최고의 영예인 '포스코명장(名匠)'으로 이름을 올렸다.

포스코는 최근 2017 포스코명장 3명을 선정하고 명장 임명패를 수여했다.

주인공은 제강 전기제어 프로세스 분야 남태규(포항 제강부), 전기강판 냉간압연기 제어 분야 서광일(포항 전기강관부), 열간압연 품질 분야 김용훈(광양 열연부) 등 3명이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연 1회 선발하는 포스코명장은 제철소 현장의 창의적 개선활동을 주도하고, 축적된 기술을 후배들에게 전수하여 기술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회사 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다.

'2017 포스코명장' 선정자에게는 자사주 50주와 상금 200만원, 500만원 상

당의 여행상품권이 지급되고, 1직급 특별승진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성과가 탁월한 명장은 임원까지 승진이 가능하도록 우대하고 있다.

지난 1978년 입사한 남태규 포스코명장은 제강정비 전기분야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 대한민국 품질명장 임명 등 대내외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1982년 입사한 서광일 포스코명장은 냉간 압연제어기술 최고의 권위자로 전기강판 압연기 제어에 독창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1990년 입사한 김용훈 포스코명장은 고강도 박물재 생산 및 품질 확보에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2015년부터 선발해 온 포스코명장은 올해 3명의 명장을 추가 임명하면서 총 10명으로 늘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 광양시-광양경제청, 세풍산단 민원 해소 '맞손'

광양시는 "최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지난 3월 8일 체결한 '세풍산단 입단지 민원해소 방안 협약'의 조속한 이행을 위한 구체적 절차와 추진방안을 최종으로 확정하고, 22일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 3월 민원해소 방안을 위한 협약 체결 이후 협약사항을 추진할 실무협의회를 구성했으며, 지난 7월 까지 매주 1회, 9차례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도로분야와 생활·공업용수 공급방안 등 분야별 추진계획을 합의했다.

도로분야는 세풍산단 진입도로 형식을 지하차도에서 평면교차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용역을 완료하고, 국토부 국토교통위원회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 후 이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다만 광양시는 교차로 형식과 무관한 도로 확장 구간에 대해서는 편입도

지 보상 및 시공이 추진되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또 세풍산단 내부도로인 중로 1-127(유자삼 서쪽)도로는 폭 20m를 24.9m로 확장하고, 중로 2-136(유자삼 동쪽)도로는 해당구역 개발 시 반영 여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생활·공업용수 관련은 당초 계획대로 율촌정수장에서 공급하고, 현재 수행중인 율촌정수장 통합관리방안은 수질용역을 통해 효율적인 급수운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실무협의회를 이끈 황학범 기업유지추진단장은 "이번 합의를 통해 광양세풍산단 입지 우선 착수부지 준공과 2단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돼 광양 지역을 비롯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기자 kds@

**미르샘메디컬센터 | 임대분양**  
나주 대표 랜드마크형빌딩

나주의 중심심장부에 건립된, 최초 메디컬센터 5월 입주!  
시외버스터미널~남고문을 잇는 중심상권에 위치한 최고의 입지!

1 767㎡ | 약국입점확정, 커피전문점, 편의점, 이동통신대리점, 브랜드의류, 축전전문점, 대형천사점  
2~5 794㎡ | 이비인후과, 내과, 피부과, 정형외과, 통증의학과, 신경외과, 가정의학과 등 전문병원 환형  
6 743㎡ | 전문병의원 및 푸에 레스토랑 등 대형연회장 환형

친철상담 | 첨단길잡이 공인중개사사무소 (광산구, 대표 이현민)  
062-972-8845 · 010-3635-5800

해남 [新] 프리미엄  
**101스퀘어 상가분양·임대**

해남 101스퀘어  
해남 [중심상거리] 누구나 탐내지만 모두가 가질수 없는 해남 중심!  
새롭게 부상하는 그 곳, 황금알을 낳는 해남군청 중심상권의 프리미엄을 드립니다.

해남군청 바로 앞!  
[구. 광주은행 해남점]  
해남의 중심에서 성공을 목격하라!

광역접근성  
- 전남지역 사민주관망도, 진도, 강진, 해남을 아우르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

행정교육의 중심  
- 군청, 법원, 세무서 모든 행정의 원은 위치  
- 해남고, 해남중학교, 해남초, 해남대입문, 해남초의 배후 교육 중심지

복합 테마상가  
- 푸드, 의류, 의료, 미용, 학원, 편의점, 카페 등 다양한 복합 테마상가  
- 폭발적인 인구증가 및 유동

안정된 수익  
- 초 저금리 시대의 확실한 투자상품!  
- 안정된 임대수익으로 대체 불가능!  
- 두번의 수익! 100% 프리미엄 가치

분양·임대 1577-1901

세종 11 | 1직급상  
사모 | 진보종합건설(주)